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과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필 수
(pskim@hri.co.kr)

1. 서론

해외자원개발사업¹⁾에 의하면 해외자원개발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혹은 합작으로 해외의 자원을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 생산하여 국내로 도입하는 각종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국내 사업자가 조사 및 탐사부터 개발, 생산에 이르는 해외자원의 개발 과정에서 전부 혹은 일부 단계에 참여하거나 해외의 사업자에게 용자나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역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포함된다.

또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는 해외자원개발을 정부에 신고를 하는 한편,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계획 수립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 제정 등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지는 이유는 해외자원확보는 한국의 대내외적 경제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원 매장량, 개발 및 생산량이 부족한 자원 빈국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비해 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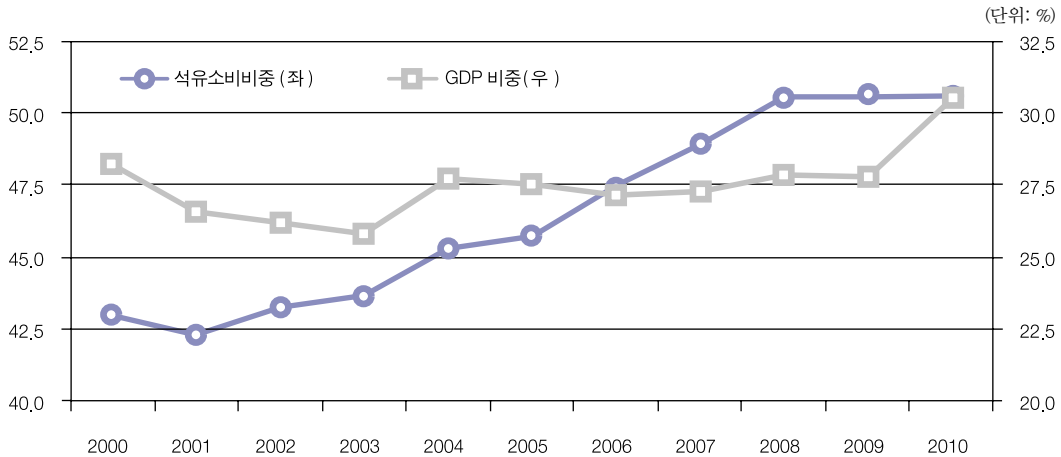
철광석 등 자원 소비량은 많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자원 소비를 줄이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이는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에 기인한다.

제품 생산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자원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 2010년의 각 산업별 GDP 1억 달러당 석유 소비량을 보면 제조업은 13.4만 배럴로 서비스업(5.2만 배럴/억 달러)이나 건설업(2.5만 배럴/억 달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중반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0년에는 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제조업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결국 한국의 전체 석유 소비에서 제조업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42%대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50%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은 제품의 수출 확대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최고조에 이른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1) 법률 제10595호(2011.4.14).



[그림 1] 한국의 전체 석유소비 대비 제조업 비중 및 전체 GDP 대비 제조업 비중 추이



자료: 석유정보망, 한국은행

이처럼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을 감안하면 당장의 자원 소비 감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자원 수입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국제정세 상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제자원 가격은 장기 상승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제 유가는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면서 국내 석유 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농산 자원 중 하나인 곡물의 국제 가격 역시 변동성 확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가격 변동성 확대는 실제 수요와 공급의 변화 외에도 상품 시장에 대한 투기 세력의 참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한국과 같은 자원 실수요국에는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결국 한국은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입량 확보와 함께 수입 가격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으로서는 해외자원확보에 다른 국가보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직접투자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에너지 광물 및 일반 광물을 포함한 광물자원에서 농림수산자원까지 1차 산업의 자원 전반에 대한 해외개발 및 확보 사업의 특징을 짚어보고 평가 및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한국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징과 평가

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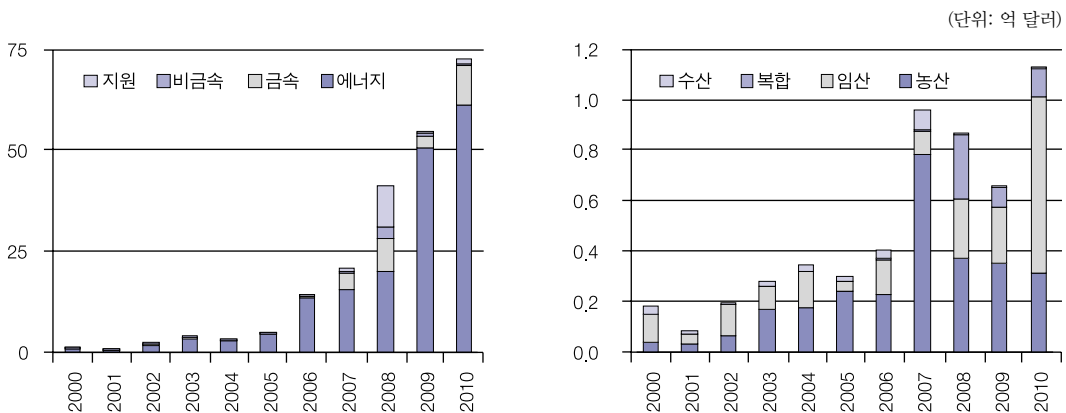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직접투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2010년 해외자원개발 투자 규모는 73억 4천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09년의 55억 달러와 비교하면 33.5%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01년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65.9%에 달한다.

이 중에서 에너지 및 일반 광물에 대한 투자액은 2001년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10년에는 72억 3천만 달러에 달했다. 또한 지식경제부가 정제, 제강, 제련 등의 일부 사업을 포함하여 해외자원개발 신고 및 성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자료에서도, 2010년 광물 투자액은 90억 9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4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다른 기준으로 비교해도 최근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며 자원 확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규모는 작지만 농림수산자원에 대한 투자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과 2009년 연속으로 감소하였지만 2010년에는 전년대비 72.1% 증가의 수치를 보이며 농림수산자원 투자에서 최초로 1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특히 농림수산자원 투자의 증가는 식량 자원 외에도 향후 바이오매스 등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해외자원개발사업 가운데 에너지 및 일반 광

물의 비중은 2009년 98.8%, 2010년 98.5%로 절대적이다. 이처럼 한국의 해외자원개발은 사실상 해외 광물자원개발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또한 광물자원투자 내에서도 원유, 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09년 92.5%, 2010년 8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해외자원투자에서 자원별 비중의 차이는 현재 한국의 각 자원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 경제의 제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 또한 그 중에서 에너지 자원투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원유, 가스는 비단 제조업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당장 수입량이 감소하거나 가격이 상승하면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민감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수차례의 오일쇼크를 거치며 국가 경제의 위기를 맞았던 기억 역시 에너지 자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원인으로 들 수 있겠다.

[그림 2] 한국의 해외 광물 및 농림수산자원개발 투자액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하여 재구성



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징

한국 해외자원개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광물자원 투자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공기업, 즉 공공부문의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지식경제부의 발표 수치를 보면 2010년 전체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 가운데 공기업의 투자 비중은 75.1%에 달한다(공기업 유전 투자 61.4%, 공기업 기타 광물 투자 13.7%, 민간기업 유전 투자 14.1%, 민간기업 기타 광물 투자 10.7%). 또한 그동안 한국 해외광물자원 투자의 주요 이정표들 대부분은 공기업이 참여한 사업들이다. 예를 들면 한국 역사상 최초의 우라늄 자주개발은 2009년 한국전력공사의 우라늄기업 테니스 지분 인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같은 해 한국석유공사가 석유기업 하베스트 에너지를 인수하면서 세계 자원기업 인수 시장에 한국이 주요 참여자라는 사실을 알린 점이나 2010년 해외자원확보 사상 처음으로 적대적 공개 기업 매수를 통한 다나 페트롤리엄 인수, 2011년 세일오일 광산 지분 참여에 따른 최초의 비전통 에너지 자원 확보 등 한국 해외자원개발의 주요 과정에는 공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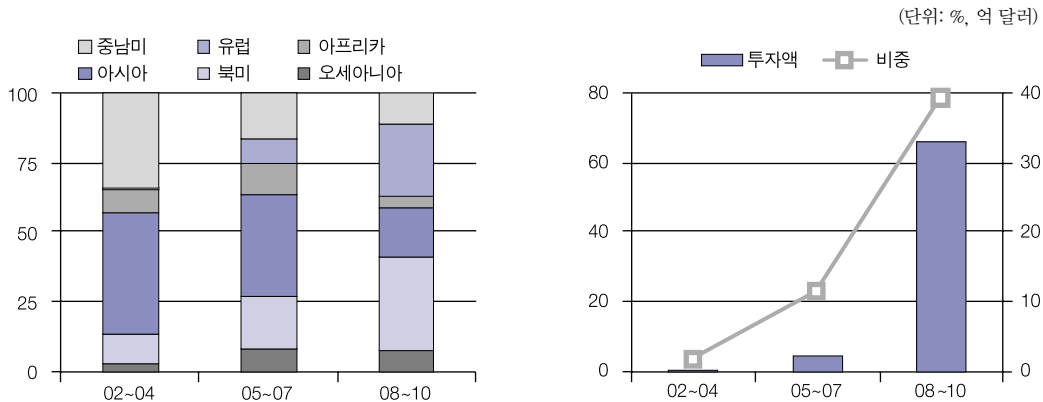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큰 점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보다는 민간의 역할이 커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자원개발사업의 특성 상 아직은 공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자원개발은 대규모 자본의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동시에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입장으로는 적극적인 투자를 쉽게 결정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정부의 입장에서 해외자원개발 및 확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도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살펴보면 특징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해외광물자원 투자의 대상지역이 아시아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북미 및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 지역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 누적 기준으로 전체 해외광물자원 투자액에서 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7.6%이다. 이와 함께 2002년에서 2004년 43.8%, 2005년에서 2007년 36.2%의 수치를 보면 아시아 비중의 하락 추세가 확연히 나타난다. 반면 전체 투자에서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은 2002년에서 2004년 10.7%에서 2005년에서 2007년 19.0%, 2008년에서 2010년 34.0%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는 유럽 지역에 대한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비중은 2002년에서 2004년 0.3%, 2005년에서 2007년 9.0%, 2008년에서 2010년 25.8%의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투자 대상 지역의 탈(脫)아시아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에서 아시아의 비중이 감소하고 북미 및 유럽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일견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자원 매장의 주요 지역이라 함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물론 북미나 유럽에도 적지 않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나 이 같은 의문이 틀린 것은 아니다. 투자 대상지역의 변화는 한국 해외자원개발의 또 다른 특징인 지분인수 방식의 투자 비중 증가와 함께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해외광물자원투자 중에서 기존 기업 혹은 사업의 지분 인수 방식을 통한 투자의 누적액은 65억 3천만 달러로 2005년에서 2007년 누적액 4억 5천만 달러에 비해

[그림 3] 한국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의 지역별 비중, 지분인수방식 투자액 및 비중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하여 재구성

무려 14.6배나 증가하였다. 이는 물론 2002년에서 2004년의 누적액 1,521만 달러와 비교하면 더욱 크게 증가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전체 해외광물자원투자에서 지분 인수 방식을 통한 투자 비중을 기준으로 보아도 2002년에서 2004년의 1.7%에서 2005년에서 2007년 11.3%, 2008년에서 2010년 39.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변화는 농림수산자원 역시 마찬가지로 2002년에서 2004년 1.1%, 2005년에서 2007년 4.5%, 2008년에서 2010년 16.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앞서의 해외광물자원 투자 대상지역 변화와 함께 보면 최근 한국 해외자원개발은 북미 및 유럽 지역의 기업 인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는 해당 지역의 기업들이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입장에서 인수가 가능한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한국 해외광물자원개발의 특징은 공기업 중심, 탈(脫)아시아, 인수방식 투자의 증가로 요약되며 이것

이 바로 현재 한국 해외자원확보의 주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평가와 과제

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평가

지난 몇 년 동안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힘입어 자원 확보의 성과 역시 적지 않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0년 원유 및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10.8%로 전년대비 1.8%p 상승하였으며, 2006년의 3.2%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가채 매장량은 연평균 17.5% 증가한 동시에 일일 생산량은 연평균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6대 전략광물(철, 유연탄, 구리, 아연, 니켈, 우라늄) 역시 2010년 전체 자주개발률은 27.0%로 2005년의 14.6% 이후 계속 상승하는 추세



를 보여준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철의 2010년 자주개발률 16.5%는 2004년 5.6%의 세 배에 달하며, 가채매장량은 2008년 13억 5천만 톤에서 2010년에는 15억 7천만 톤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²⁾ 또한 유연탄은 48.3%로 연간 수요의 절반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는 한편, 니켈 역시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밖에 리튬, 희토류 등 주요 희소금속들로 구성된 신(新)전략광물의 2010년 자주개발률은 8.5%로 당초 목표치인 5.5%를 상회하는 등 광물자원이 전반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농산자원 역시 확보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곡물자원의 해외 확보량은 생산량 기준 8만 7천 톤으로 2009년과 비교하여 3.9배 증가하였으며, 해외농산자원개발이 아직 시작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의 더욱 많은 확보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 해외자원개발에서 표면적인 지역적 다각화는 달리 투자 집중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해외광물자원 투자의 탈(脫)아시아 등 투자 대상지역의 변화와 함께 자원 투자 대상 국가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한국의 광물자원과 관련한 투자 대상국 수는 67개국으로 2002년에서 2004년의 36개국, 2005년에서 2007년의 49개국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농림수산자원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2002년에서 2004년 25개국, 2005년에서 2007년 30개국, 2008년에서 2010년 64개국으로 빠른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자원 투자 집중도의 변

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산출한 HHI(Herfindahl - Hirschman Index)의 결과는 다른 흐름으로 나타난다. HHI란 본래 시장의 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해당 산출식에 각 국가 및 자원에 대한 투자액을 대입하면 한국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집중 정도 변화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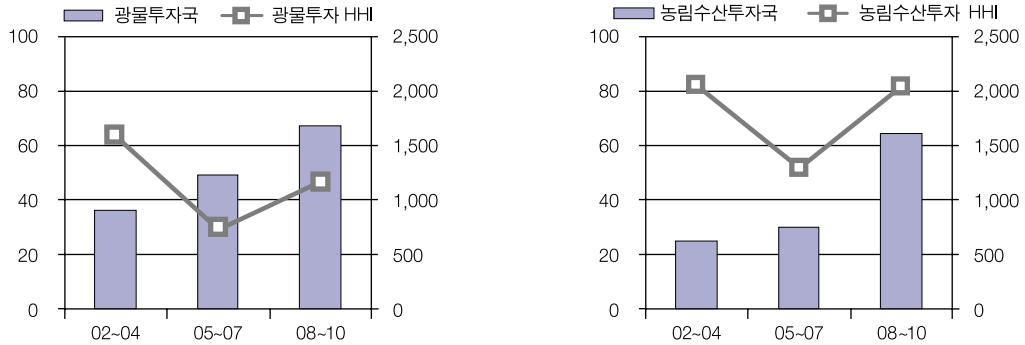
$$\text{자원투자의 HHI} = \sum_{\text{전체 투자국가}} \left(\frac{\text{특정국가에 대한 자원개발투자액}}{\text{전체 자원개발투자액}} \right)^2$$

이에 따라 특정 자원 투자의 HHI는 한국이 해당 자원과 관련하여 투자하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 자원에 대한 전체 해외 투자액에서 대상 국가 각각의 투자액 비중을 산출 후 이를 제곱하여 나온 모든 국가별 수치들을 합산한 값이 된다. 이를 통해 실제 한국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HHI 결과를 보면,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의 투자 누적액 기준 해외광물자원 투자의 HHI는 1,581.3이었으며, 2005년에서 2007년 투자의 HHI는 734.3으로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2008년에서 2010년 투자의 HHI는 1,157.0으로 다시 높아진 수치를 보인다. 이는 농림수산자원에서도 같은 흐름으로 나타나 2002년에서 2004년 2,043.5에서 2005년에서 2007년 1,290.3으로 크게 낮아졌다가 2008년에서 2010년은 2,038.5로 다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2000년대 후반 투자 대상 국가 수가 증가했음에도 일부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집중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의 집중이 해외

2) 원유 및 가스, 철광석의 2010년 가채매장량 및 일일 생산량은 추정치임.

[그림 4] 한국 해외 광물 및 농림수산자원개발의 투자국 수와 투자 HHI 추이

(단위: 개국)



주: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 집중도 심화를 의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하여 재구성

자원 확보 지역의 집중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원 수입 지역의 집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향후 해당 지역에서 전쟁 등 국가 소요사태나 수송경로 상의 단절과 같은 돌발 변수 발생 시 수입 리스크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과제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결 과제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여전히 자주개발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의 2010년 원유 및 가스 자주개발률 10.8%는 일본의 2008년 자주개발률 21.9%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는 일본이 제조업의 비중이 큰 동시에 많은 인구에 따라 자원 소비량이 많다는 점, 소비에 비해 국내 부존 자원은 부족한 점 등에서 한국과 유사한 자원 안보 상황에 처해있으며, 해외자원 확보에 있어서도 주요 경쟁 국가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더 큰 노력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이밖에 한국 해외자원개발의 또 다른 과제로는 해외자원기업 인수 가격의 상승 문제를 들 수 있다. 앞서 주지하였다시피 자원기업의 인수는 최근 한국 해외자원 확보의 주요 전략이다. 하지만 자원 확보 경쟁, 자원기업의 인수 경쟁 심화는 인수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 자원 매장 및 생산 기업의 소유 구조 상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세계 자원 매장량의 많은 부분은 국영 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나머지 매장량에서 상당 부분을 자원 메이저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를 볼 때 이들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나머지 민간 자원기업들이 피인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자원 확보가 북미, 유럽의 민간 자원기업 인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결국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며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편 인수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중국의 해외자원 확보 움직임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04년, 2005년부터 2007년, 2008년부터 2010년 각 기간 동안의 자원 관련 10대 국제 M&A³⁾의 평균 거래액은 12.3억 달러에서 24.8억 달러, 36.3억 달러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이 2000년대 후반부터 세계 각지의 자원 매입에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기업 인수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2009년 한국을 제치고 인수한 아닥스 사례나 이후 호주 정부의 규제로 경영권 인수까지는 실패했지만 2008년 미국과 함께 지분 일부를 인수한 바 있는 리오틴토의 사례는 2005년 이후 석유, 가스 부문 및 일반 광물 부문의 국제 M&A에서 각각의 최고 거래액 사례에 해당할 정도이다. 이외에도 중국의 해외자원 확보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던 2009년이 자원기업의 인수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이며, 이후 각국의 견제로 자원 확보에 다소 소극적으로 전환한 2010년부터 인수 가격이 낮아진 사실은 세계 자원 확보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한국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주요 과제 중 마지막으로 농산자원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서야 곡물 등 해외농산자원개발 사업에 조금씩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현재 한국의 자원 수입상황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2007년에서 2009년 누적 기준 한국의 농림수산물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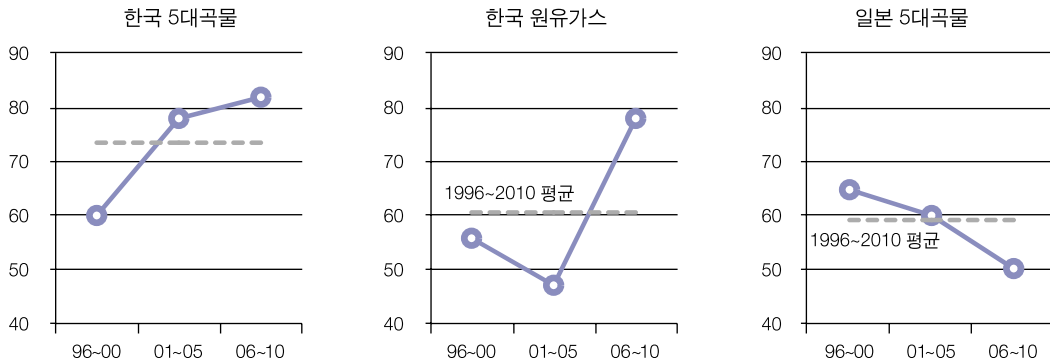
의 순수입액 규모는 OECD 국가 가운데 4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일본, 영국, 독일밖에 없다. 이에 더해 한국의 농산물 수입 가격은 국제 가격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5대 수입 곡물(옥수수, 밀, 대두박, 대두, 커피)을 기준으로 1996년에서 2000년, 2001년에서 2005년, 2006년부터 2010년의 각 기간 중 6월물 국제 선물 가격이 $\pm 3\%$ 이상의 변화 시 이후 1~3분기 내 한국 수입 가격이 $\pm 3\%$ 이상 변화한 경우는 60.0%, 77.8%, 81.8%로 나타난다. 이는 국제 가격 변화에 따라 수입 가격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의 수입 가격이 변화한 경우는 64.7%, 60.0%, 50.0%로 점차 낮아지는 것은 물론 2000년대에는 한국보다 안정적인 수입 가격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원유, 가스 및 비교해보아도 곡물 수입 가격이 원유, 가스 수입 가격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 원유 및 가스 가격에 촉각을 세우면서 수입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 같은 오해는 원유, 가스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은 곡물을 비롯한 농산자원 등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무관심이 해외자원투자의 규모가 작다는 문제는 물론,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한국은 곡물, 채소 및 과일, 낙농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

3) Bloomberg Data 기준. 국제 자원 확보 경쟁 심화 추세를 알기 위해 모기업의 기존 해외 자회사 인수,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광물 기업 인수 사례는 제외.

[그림 5] 한국 5대 곡물 및 원유가스, 일본 5대 곡물의 선물 시장 가격 변화 시 수입 가격 영향 비교

(단위: %)



주: 김태훈, 승준호(2009)의 가중평균 수입곡물가격지수 산출 방법론에 따라 분기별 수입가격지수

$$GP_t = \frac{\sum_{i=1}^n w_i \cdot IMP_{i,t}}{\sum_{i=1}^n w_i \cdot IMP_{i,2005}} \times 100, GP: \text{수입가격지수}, w_i: \frac{\text{곡물 } i \text{의 수입액}}{\text{5개 곡물의 수입액}}, IMP_i: \text{자원 } i \text{의 수입단가}$$

i : 옥수수, 밀, 대두박, 대두, 커피(이상 곡물), 원유, 천연가스)와 선물가격지수(IMP_i 대신 FPI_i: 곡물 i 의 6월물 선물가격을 대입)를 5대 곡물과 원유 및 천연가스를 분리하여 각각 산출한 후 각 기간별 자원의 6월물 선물가격지수 상승 신호 발생(전분기대비 $\geq |\pm 3\%|$ 변화) 후 1~3분기 내에 자원 수입가격지수 영향 발생(전분기대비 $\geq |\pm 3\%|$ 변화) 비중을 산출함.

자료: 무역협회, ICE, Nymex, CBOT 데이터를 분석하여 재구성

이는 것에 비해 각 자원들의 해외투자 증가율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자원의 수입과 해외 투자의 불균형은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 자원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4. 시사점

첫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그동안 자원 관련 공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높은 성과를 거두면서 해외자원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투

자의 방향과 효율성과 같은 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공공부문의 역할로서 민간이 참여하기 힘든 자원개발 사업에 공공부문이 참여하여 수익성이 확보되면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과 같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큰 틀로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비전통 자원을 포함해 미래의 가치를 지향하는 투자, 리스크 관리 문제 등을 포함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들을 마련하여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보다 가치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자원의 확보 과정에서 국제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용한 확보 전술이 유용할 수 있다. 각 국가 및 기업들의 자원에 대한 관심 증대, 경



쟁 심화와 함께 자원 기업·광구 등의 인수 가격은 언제든 상승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인수 계획 공개 후 경쟁국 정부 및 기업의 참여와 가격 상승으로 자원 확보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예상했던 적정가격 이상을 지불하거나 확보전략이 노출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해외자원 확보는 경쟁을 통한 승리보다는 실리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셋째, 자원 보유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자원민족주의에 대비해야 한다.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대비는 언제나 강조되는 부분이지만 최근의 국제 정세는 자원민족주의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요인들을 형성하고 있다.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되는 조건으로는 자원 가격의 상승, 자원 소비국의 민족주의, 자원 생산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개발 및 생산에 높은 기술과 많은 자본을 요구하지 않는 재래형 자원 등이 있다⁴⁾. 또한 자원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최근의 국제 정세는 자원 가격의 장기적 상승 추세, 자원 소비 대국인 중국의 자원을 향한 탐욕,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자스민 혁명, 개발도상국의 제조업 발전 및 인프라 개발에 따른 석유, 철 등 재래형 자원 수요 증가의 특징들을 보인다. 따라서 지금은 자원민족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넷째, 광물자원에 대한 해외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자주개발물 등 자원 안보 지표의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다양한 자원의 해외투자 전략 수립과 함께 투자 가이드라인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자주개발물과 같이 자원 안보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 자원 시장의 참여를 통해 자원 가격 및 수급의 단기 변화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한 자원 확보는 자원 안보 문제에 대한 장기 대응방안이다. 하지만 최근 자원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단기적인 대응방안의 마련 역시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 자원 시장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국제 시장의 참여를 통해 가격 급변 및 돌발적인 수급 변수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도현재·조현태, 「해외자원개발전략연구: 국영자원개발기업 성장전략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 국회도서관, 「자원전쟁: 해외자원개발」, 2011
- 오종혁·김부용, 「중국 내 희토류 산업 관리 강화와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김태훈·승준호, 「신호접근법을 이용한 국제곡물가격 조기경보시스템」, 농촌경제연구원, 2009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9년도 광산물 수급현황」, 2010

4) 石井 彰(2010).

〈외국 문헌〉

Metals Economics Group, “World Exploration Trends,” 2010

UN, “World Investment Report,” 2010

FAO, “Food Outlook,” 2010

JOGMEC, “我が国における資源開発を巡る現状と課題,” 2010

石井 彰, “その後の資源ナショナリズム,” JOGMEC, 2010